

2013 봄

햇볕

2·28 제13권 1호 통권49호

시론 2·28민주운동, 대구 정신의 고갱이
특집 2·28민주운동 제53주년 기념식 및 기념회관 개관식



사단
법인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www.228.or.kr

누가 그걸 함성이라 했는가

그날의 해는 거기서 멈추었다
먼 동해, 파도의 갈기는 달구벌을 범람시켰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역사여, 역사여, 어디로 가려 하는가

저 거대한 불꽃은 한반도를 내달려 마침내
대구에서 활활 몸부림치나니
일어나라 그대들이여 심장 가득 불꽃을 맞이
하라

우리가 외치는 이 민주화에 불을 놓아라
2·28은 하늘의 날이니

단군의 신화에 독재라는 말은 없었다
아, 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노의 외침
으로

3·15에 햇불을 당겨
4·19로 가, 정의를 부르짖었다
한 목숨, 한 목숨이 모여 마침내 거리는
광야가 되던
어찌 그 항쟁(抗爭)을 잊을 수 있겠는가

정 태 일
시인



노도(怒濤) 위로 다시 해가 기울고 뜬다
팔공산은 지금, 달구벌의 도도함을
금수강산 위에 놓았다
목숨과, 선혈(鮮血)과 그것들로 바꾼
오늘의 자유여
세세만만 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누가 그걸 함성(喊聲)이라 하는가, 피가 튀던
그것은 천지간의 통곡(痛哭)이었다





▲ 표지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전경

제13권 1호 통권49호 봄

발행인 / 이 광 조

편집인 / 김 약 수

인쇄 / 2013년 4월 22일

발행 / 2013년 4월 22일

편집위원 / 박명철 이방현 장영향 박종훈

서정일 정수용 김동환 허 용

발행처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700-826 대구광역시 중구 2·28길 9

(남산1동 2113-10번지)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Tel. (053)257-0228, Fax. (053)254-0228

E-mail : 228demo@hanmail.net

Homepage : http://www.228.or.kr

인쇄처 / 신문사 (053)474-9000



題字 : 蕙汀 柳永喜

2013년 봄 제13권 1호 통권49호



시론

04 2·28민주운동, 대구 정신의 고갱이 / 이상훈 매일신문 편집국장



2·28특집

08 2·28민주운동 제53주년 기념식 및 기념회관 개관식

09 2·28민주운동 제53주년 기념식 대통령 축하 메시지

10 기념사-2·28기념회관을 문화의 전당으로 / 이광조

16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2013년 정기총회

18 2013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업계획



특별기고

20 2·28민주운동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제언 / 장상두

25 '명덕역'에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이름을 같이 쓴다



자유기고

26 2·28민주운동 지난 과거의 시간에만 머물지 않기를 / 강태길

30 소설가故이태원 형을 그리며 / 홍종흠

33 주먹역, 구구역 / 마대복



문예광장

36 연작소설 · 2·28 그리고 반세기 · 8 / 김광수

41 시·무료한 하루 / 강지희

42 수필·한 점으로 / 최시호



2·28일지

45 김연수 행정부시장 / 중구의회 의장단 2·28기념회관 방문

46 8개교 교장 간담회 / 하청호 이사 2·28관련 자료 기증

47 우등기 교육감 · 2·28일원 간담회

효성여고 유네스코활동 그룹팀 2·28기념관 방문

48 2·28기념관 고유제 / "2·28을 기억합니다" 정기 연주

49 2·28일지

50 2·28 학교 문화강좌

51 제13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 게재된 글은 본 사업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원고를 다음호에 게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임회안내

※ 2·28민주운동 기념사업을 돕는 여러분의 정성은 2·28정신 계승발전과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 2·28 회원으로 가입하면 영구히 전산입력 보전됩니다.

(학생 1,000원, 개인 10,000원, 단체 100,000원 이상)

입금계좌 : 대구은행 018-05-002264-2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본 법인에 납부하는 회비 및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261호)

2·28민주운동, 대구 정신의 고갱이



이 상 훈
매일신문 편집국장

대구경북에는 지키고 가꾸어야 할 정신이 너무나도 많다. 다른 지역에 사는 이들은 물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지키고 가꾸어야 할 보편타당한 대상과 합리적 명분을 조금 더 천착해 들어가면 ‘정체성(아이덴티티 · Identity)’이란 단어로 연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 더 심화한다면 ‘정신’이나 ‘혼(魂)’이란 영역까지로 넓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몇 명이 함께 사는 가족에게도 가훈(家訓)이란 게 있는데 하물며 대구경북을 합쳐 500여 만 명이 사는 이 지역에 정신이나 혼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천 년을 이어온 역사를 봐도 대구경북에는 지키고 가꾸어야 할 정신이나 혼이라는 게 오롯이 살아 있었다. 우리 자신이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꾸고 보전하는 데 소홀했을 뿐이다.

1. 호국·근대화의 고장 대구경북

무엇보다 대구경북은 이 나라를 지킨 호국(護國)의 보루(堡壘) 역할을 했다. 가깝게는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구심점이 된 곳이 대구경북이

었다. 낙동강을 비롯해 대구경북에서 두 달 동안 치러진 치열한 격전을 계기로 이 나라는 누란(累卵)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지역 사람들의 호국 정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1894년 갑오의병에서부터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민족이 고통받고 신음했던 암울한 시기에 대구경북은 독립운동의 발상지이자 성지(聖地)였다.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인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대구경북이고, 가장 많은 자정순국자(自靖殉國者)를 배출한 곳도 이 지역이다. 대구경북인의 독립운동과 정신은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더 거슬러 올라가 임진왜란 당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 의병활동을 치열하게 펼쳐 왜적(倭賊)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곳도 대구경북이었다.

이 나라를 근대화로 이끈 주역도 이 땅의 사람들이었다. ‘원조를 받는 비참한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눈부시게 발전시킨 이가 대구경북인이었다. 이 나라 근대화의 산실(産室)이 대구경북인 것이다. ‘하면 된다’는 정신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도약대를 만든 곳이 대구경북이다.

호국과 근대화에 이바지한 것과 함께 대구경북인이 이 나라에 공헌한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성리학의 본향(本鄉)으로 수많은 인물을 배출하고 학문을 발전시킨 것은 물론 비록 사약(賜藥)을 받을지언정 임금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선비정신을 올곧게 실천했다. 동남아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새마을운동은 대구경북의 또 다른 자산(資産)이다.

2. 혼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

얼이 빠졌다는 말이 있다. 혼비백산(魂飛魄散)이란 표현도 있다. 뒤집어 얘기한다면 얼과 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얼과 혼, 정신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개인은 물론 지역이나 민족, 국가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도약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알아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때론 시대의 선구자로, 때론 시대의 지도자로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한 대구경북의 자취를 하나하나 조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통(疏通)보다는 불통(不通), 상생(相生)보다는 상극(相剋)이 판을 치는 이 시대, 대한민국은 대구경북에 또 다시 커다란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이 나라가 도약하고 발전하는 데 대구경북이 리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꾼 스티브 잡스의 성공 비결은 창의성에 있다. 단순한 손(手) 기술로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다. 정신과 혼이 깃든 것이어야만 치열한 경

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대구경북의 혼을 찾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이 지역이 생존할 수 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대구경북의 혼을 찾고, 그래서 대구경북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시대를 다시금 열어야 한다.

3. 우리부터 대구경북을 사랑하자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대구경북이 다시 도약할 길은 요원하다. 대구경북이 다시 날아오를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의 시선으로 대구경북을 바라보고, 부정보다는 긍정의 마음으로 대구경북을 보듬어 발전의 전기(轉機)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 대구경북에 대해 갖고 있던 그릇된 인식을 확 바꾸는 게 급선무다.

다른 도시들은 없는 자랑거리도 만들어 내는데 대구경북은 있는 자랑거리도 안 내세우는 풍조가 있다. 우리 것을 존중하고 아끼는 의식도 약하다. 누가 대구경북에 대해 나쁜 시각으로 왜곡된 이야기를 쏟아내도 제지는 고사하고 방어도 하지 않는 실정이다. ‘뭘 하러 선전하겠노’로 대변되는 ‘마 됐다’ 의식이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냉정한 비판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얕잡아보는 자기 비하(卑下)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

나부터 우리 도시를 긍정·애정의 마음을 갖고 바라봐야 할 때다. 우리가 대구경북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남한테 잘 봐 달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먼저 대구경북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대구경북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다.

과거나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근거도 없이 대구경북을 뽐내자는 게 아니라 대구경북 시도민의 자긍심을 찾아, 어려움을 돌파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4. 2·28, 대구경북 정신의 고갱이

지난 2월 28일 대구경북 정신을 상징하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이 개관했다. 1960년 대구 고교 학생들이 주도한 2·28민주운동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의 민주화 시위로 4·19 민주혁명의 도화선을 제공했다. 대구 명덕초교 부지에 문을 연 2·28기념회관은 반세기 전 독재에 항거해 민권 의식을 고취시킨 대구 학생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그 정신을 기리는 기념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주지하다시피 2·28민주운동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의 민

주화 시위다. 독재와 불의, 부정부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어린 학생들의 땀과 피가 4·19민주혁명의 씨앗이 되고 디딤돌이 된 것이다.

2·28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근간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2·28민주운동은 대구경북 정신문화의 상징인 동시에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 시민민주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런 만큼 2·28기념회관이 앞으로 담당해야 할 몫도 막중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2·28기념회관은 2·28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민주주의와 민권, 시민정신의 중요성을 제대로 환기시키는 공간으로 굳게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당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빠짐없이 갖춰 간접적으로나마 그 열기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배움터가 되기를 기원한다.

앞으로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해 많은 신세대들이 자랑스러운 2·28민주운동과 같은 대구경북 정신의 계승과 발전의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근대골목 투어와의 연계나 국채보상운동발상지기념회관 등 도심 곳곳에 산재한 근현대 역사문화 현장을 두루 관통하는 탐방 로드도 함께 조성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2·28민주운동은 의(義)를 숭상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대구경북 정신의 표출이다. 앞으로 이 지역에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는 데 2·28정신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확신한다. 2·28민주운동은 21세기를 헤쳐 나갈 대구경북 정신의 고갱이(사물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임이 분명하다. ■



2·28민주운동 제53주년 기념식 및 기념회관 개관식

2·28민주운동 제53주년 기념식 및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개관식이 2월 28일 오전 11시 대구명덕초등학교 강당에서 각급기관단체장, 2·28회원,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KBS 양문석 아나운서 사회 진행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식전행사로 래디즈 코러스합창단(지휘 김희윤 교수)과 곽홍란 교수의 김윤식 시인의 아직도 체험할 수 없는 까닭 현시 낭송과 강정화 무용이 있었다. 대구시 황종길 자치행정과장의 경과보고, 경북고등학교 이승제 학생의 결의문 낭독, 이광조 공동의장 기념사,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의 대통령 축하 메시지 낭독과 축사를 비롯해, 시의회 송세달 부의장, 성삼제 부교육감, 박희관 대구지방보훈청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메시지와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준공과 함께 개관식 보고에 식장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고, 바리톤 박병일 박사의 2·28찬가를 끝으로 기념식을 마쳤다. 이어서 2·28기념관 개관식장으로 옮긴 김범일 대구광역시장과 각급기관장, 이광조 2·28의장을 비롯한 회원과 시민 학생들은 2·28기념관 앞에서 류영희 서예가의 글로 제작된 현판을 제막하고 기념관 1층 전시관, 2~3층 도서관, 문화강좌실 등을라운딩하며 설명을 들었다. 이날의 2·28의 기념식과 개관식은 기념관 4층 회의장에서 축하 다과회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광조 공동의장과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공로패와 표창패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공로패·표창패(박명철 8대공동의장) 표창패(홍종흠 2·28고문, 조장형 (주)디자인피움대표, 태훈건설 김성호 부장) 3. 2. 28(목)

경 2·28민주운동 기념식 및 회관 개관식 축

주최 :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후원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지방보훈청





대한민국 대통령

2·28 민주운동 제53주년 기념식 축하 메시지

2·28 민주운동 53주년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념회관을 개관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문을 여는 기념회관이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마음에 그 날의 역사를 되살리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육의 연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운동의 효시이자 산업화의 심장이었던
대구시민, 경북도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위기극복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가슴에 품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2013년 2월 28일

대통령 박근혜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을 문화의 전당으로



이 광 조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늘 날씨도 차가운데 2·28민주운동 5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2·28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개관을 적극 지원해 주신 김범일 대구광역시장님, 대구시의회 송세달 부의장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성삼제 대구시 부교육감님, 최성환·김기식 교육장님, 박희관 대구지방 보훈청장님, 윤순영 중구청장님·임인환 의장님, 곽대훈 달서구청장님, 남구조재구 의장님, 대구일보 이후혁 사장님, 각 기관단체장 및 정당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오신 정성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님, 4·19 민주혁명회 신종구 이사님, 유족회 박정강 회장님, 이광형 지부장님, 3·15 의거 기념사업회 변승기 회장님, 또한 대구시내 각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명덕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오늘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3년 전 2월 28일!

대구의 8개교 남녀고등학생들은 교문을 박차고 함성을 지르면서 대구의 심장 부인 반월당을 거쳐 현 경상감영공원에 위치한 경상북도 도청까지 자유와 정의

를 외치며 규탄시위를 한 것이 3·15 마산의거,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되어 같은 해 4월 26일에 자유당 이승만 독재 정권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학생운동이 아시아권에서는 첫 번째 민권운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90년 2월 발족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28의 대구 학생의거는 그동안 국가차원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2009년 12월에 국회에서 고 이해봉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2·28 관련 법률 개정안이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2010년 2월 4일 제10007호로 법률이 공포되고 나서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괄목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구광역시와 2·28기념사업회는 정부지원사업으로 5만 4천여 회원들이 열망하는 2·28민주운동 기념회관이 오늘 탄생합니다. 그동안 기념회관 건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신 김범일 대구광역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념회관 개관 오픈식을 거행함으로써 대구시민을 위한 문화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는 전임의장, 임원 및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첫째, 2·28 장학제도와 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고 둘째, 문화 인프라 측면에서 문화특화학교를 시범운영하고 마지막으로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를 젊고 유능한 청·장년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위의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지방보훈청 등 관계기관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활한 소통이 2·28 민주운동과 일체침략에 맞서 독립정신을 고취한 국채보상운동은 대구·경북인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4일째 되는 날입니다. 국운이 함께 하고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이 문화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28일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의 대통령 축하메시지 낭독



이광조 공동의장 기념사



시의회 송세달 부의장 축사



성삼제 부교육감 축사



이승제(경북고) 학생의 결의문낭독



곽홍란 교수의 김윤식 시인 헌시 낭송



바리톤 박병일 박사의 2·28찬가



강정화 무용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개관 스케치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개관식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 전시관 설명 청취



도서실 (3층)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전시관 내부(1층)



2·28기념관 개관 테이프 커팅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개관 스케치



“2·28 飛翔 民主精神”(一精 蔣相斗)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제9대 이광조 공동의장 선출 -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

본회 2013년도 정기총회가 2월 5일(화) 오전 11시 2·28민주운동기념회관 회의실에서 2·28 임원, 회원 등 1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총회에 앞서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일정 장상두(一精 蔣相斗) 서예작가의 “2·28 飛翔 民主精神” 퍼포먼스를 하여 참석회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곽중훈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안인옥 고문, 최용호 고문, 김옥희 여사, 김명호 교장에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이어 박명철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5만 4천여 숙원사업이었던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이 건립된 이 자리에서 총회를 개최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고 그동안 협조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제부터 새로운 2·28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하고 2·28의 위대함과 위상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이어 서성욱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2012년 수입, 지출, 사업 실적과 2013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정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제9대 임원선출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박명철 공동의장은 감사선출방법 제안에 예종만 회원으로부터 서성욱 세무사, 김약수 교수를 추천하고, 의장이 제안한 현 이사 유임제안을 만장일치 가결하였다. 이어 대표공동의장 선출방법 제안에 조화형 이사로부터 이광조 이사를, 류무열 회원으로부터 정기표 이사를 각각 추천받아 거수로 표결, 이광조 후보의 다수 득표로 의장은 이광조 후보를 제9대 대표공동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하였다.

행사축하 공연으로 최순분 무용가의 부채춤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박명철 공동의장이 제9대 이광조 신임공동의장에게 법인기 인계



서예작가 일정 장상두(一精 蔣相斗)의 총회 축하 퍼포먼스



2013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업계획

(2013. 1. 1 ~ 2013. 12. 31)

2013년 2·28민주운동 53주년을 맞아 2·28정신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되고자 함.

1) 제53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 2·28기념관, 역사의 현장 사진전

- 세부계획

사업내용	추진일정	내용	비고
53주년 기념식 및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개관식	2013. 2. 28. (목) 10:30~12:00	*대구명덕초등학교 강당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기념식장 용역, 가로등 배너설치, 전광판영상 홍보(세부 계획 별도)
2·28역사의 현장 사진전	2013. 2. 21.(목) ~28.(목)	*2·28기념탑앞 광장 (대구 두류공원내) *2·28기념중앙공원 (대구 공평동)	2·28사진 롤스크린인쇄 현수막

2) 제4회 2·28민주운동 고교학생마라톤대회

- 목적 : 2·28 민주운동 53주년을 맞아 2·28고교학생마라톤을 개최하여 2·28정신계승과 세계육상도시로서의 면모를 구축하고자 함.
- 세부계획

사업명 및 추진일정	내용	비고
2·28민주운동 제3회 학생마라톤 대회 (2013년 4월 13일)	*명칭 : 2·28민주운동 53주년 기념 고교학생마라톤 대회 *일시 : 2013년 4월 13일(토) 오전 09:00~14:00 *장소 : 두류공원 내 야구장, '2·28기념탑 광장' *대상 : 지역 고교남녀학생 2,000명 *주최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주관 : 대구일보 *후원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참가신청 : 2013. 3. 30(금) 선착순 마감	*대구시, 교육청, 지역고교, 대구일보와 긴밀협력 *언론홍보

3) 2·28회원 고교표창

- 방법 : 2·28회원 가입 고교별 개교기념일 모범학생 표창

4) 제13회 2·28민주운동글짓기 공모 시상식(산문)

- 목적 : 자라나는 초·중·고 청소년들에게 2·28민주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토록 하여 2·28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데 있음.
- 일시 : 2013년 4월~6월

5) 제13차 2·28민주포럼

- 목적 : 2·28민주포럼을 통하여 2·28정신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계승함.
- 내용 : 별도계획

6) “햇불” 홍보자료 발행

- 목적 : 전국 국민과 지역민들에게 2·28대구학생민주운동이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민주운동이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4·19혁명으로 이어진 참뜻을 전하며, 2·2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
- 발행방법: 연4회, 14,000부(54P)
- 발행내용: 시론, 행사, 특집, 특별기고, 문예광장, 일지 등

7) 2·28기념관 운영계획 워크숍

- 일시 : 2013년-하반기
- 세부내용 : 별도 계획

8) 2·28기념음악회

- 취지 : 1961년 2·28기념탑이 세워졌던 명덕네거리 표지석 앞에서 매월 28일 오후 2시 28분 (“2·28을 기억합니다”) 작은음악회를 통한 지역민의 소통과 “2·28민주운동”을 극대화하고 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전함.
- 연주단 : 대구현대음악오케스트라

9) 2·28학교, 문화강좌, 문화축제

- 2·28기념관에 2·28학교를 개설, 음악연주회를 통한 합창경연대회, 초·중·고교 힐링콘서트, 각종문화강좌등 대구문화운동을 펼쳐 나감.
- 별도 프로그램

10)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안내 팸플릿 제작

- 2·28기념회관 개관과 함께 방문객 등의 홍보용 안내 프로그램

11) 2·28장학사업 · 2·28연구소 사업 추진

- 2·28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인재육성과 내실있는 기념사업을 추진함(별도 추진위 구성)
- 2·28연구소를 운영하여 2·28민주운동의 미래의 비전을 모색함(별도 추진위 구성)

12) 2·28회원 배가 운동

- 취지 : 2013년 뜻깊은 2·28민주운동 제53주년과 2·28기념관 개관과 함께 회원 10만명 가입운동을 적극 추진함.- 2012. 12. 31현재 총54,956명(2012년도 가입회원 2,101명)

2·28민주운동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제언

장 상 두

(재)법운문화장학재단 상임이사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위원장



1. 기금조성 목적

본인은 영남대학교에서 35여 년간 봉직한 동안 보람 있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지난 1992년 5월에 개최한 “개교 45주년 기념 발전기금 조성 서화 초대전”이다.

1990년대 초 최고조에 다다른 민주화 과정에서 대학등록금 인상반대투쟁으로 대학재정이 어려웠던 시기에 전국 처음으로 저명한 서화인을 대상으로 전개한 “대학 발전기금 조성 서화 초대전”은 기금조성운동으로 전환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현재 민주화 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법률의 수혜를 받고 있는 대다수 단체의 운영재원은 전액 정부지원금이나 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무조건적이고 의존적인 운영 형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관례적인 지원형태를 벗어나 자활적 운영의 지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의 재정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지방보훈청의 보조금으로 비율은 50%에 이르고 있으며 이사회비, 학교단체회비, 회원회비, 찬조금, 광고수입 등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재원으로는 ‘장학재단 설립과 연구소 설립’이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재원 확

보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기념사업회의 당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주적인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2·28 민주장학기금 조성”이라는 명제 아래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2·28 민주운동 정신의 국제화를 위한 “세계청년비엔날레”라는 구체적인 사업을 도모하고자 한다.

2. 기금조성 개요

- 1) 명칭 : “2·28민주정신 세계청년비엔날레”(가칭)
- 2) 목적 : ① 장학재단 설립 기반조성 ② 2·28민주정신 국제화
 ③ 연구소 설립 기반조성 ④ 기념사업회 문예활동지원
- 3) 주최 :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한국미술협회
- 4) 주관 : 2·28민주정신 세계청년비엔날레 조직위원회
- 5) 기간 : 2014년 2월 25일 ~ 2014년 3월 10일(2주간)
- 6) 장소 : 대구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 전관
- 7) 후원 : 방송언론사, 정부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상공기관, 국회, 보훈기관
- 8) 출품초대작가 : 500명(국내작가 400명, 국외작가 100명)
- 9) 대회장 : (사)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김범일 · 이광조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조강훈
- 10) 운영위원장 :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박명철
 (사)한국미술협회 대외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장상두
- 11) 조직위원장 : (사)한국미술협회 국제청년비엔날레위원장 최우식
- 12) 작품 규격 : 10호 기준
- 13) 판매 작품 배분 : 작가 50%, 기념사업회 30%, 한국미협 20%

3. 기금조성 동기유발

2·28민주운동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2·28민주정신 세계청년비엔날레”의 필요성에 대한 직접적인 동기는 다음과 같다.



가) 제9대 이광조 공동의장 취임사(제53주년)

나) 홍종흠 고문 발제

2·28기념사업회 제3기 시대의 발전방향

(2·28특집 - 2·28 민주운동 워크숍 : 2012 겨울, 햇불 통권48호)

다) 김정길 고문 토론

2·28기념사업회 문화운동으로 펼쳐져야 한다.

(2·28특집 - 2·28 민주운동 워크숍 : 2012 겨울, 햇불 통권48호)

4. 기금조성 서화초대전 사례

〈사례 1. 영남대학교〉

가) 명칭 : 영남대학교 개교 45주년 기념 발전기금 조성 서화 초대전

나) 목적 : ① 장학기금확대 ② 우수교원 확보 ③ 교육, 연구시설, 기기확충
④ 후생복지확대

다) 기간 : 1992. 5. 19 ~ 24(6일간) 현대 서화인 작품소장. 전시 등

라) 장소 :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마) 참여작가 : 166명(국전작가 146명, 대구·경북작가 20명)

바) 출품수 : 188점

사) 개최결과 : 188작품 중 1/3판매, 제경비 공제 후 1억7천여 만원의 순기금 및 2013
년 2월말 기준 936억원의 발전기금이 조성되었음(영남대학교 대외협력
처 제공)

〈사례 2. 전북대학교〉

가) 명칭 : 전북대학교 개교 45주년 기념 서예, 회화 초대전

나) 목적 : ① 예향 전북지역 사회문화예술 창달
② 문화예술창달 역할을 대학중심체로 이전
③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준비작업(기증 작품 대부분 소장 및 상설 전시)
④ 전북대학교 발전기금의 조성(기증 작품의 대학교 재산화)

다) 기간 : 1992. 11. 20 ~ 30(11일간)

라) 장소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전시관

마) 참여작가 : 252명

바) 개최결과 : 제경비 공제후 2억7천여 만원의 순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 2월 기준 334억3천여 만원의 발전기금이 조성되었음(전북대학교 기획처 발전지원부 제공)

〈사례 3. 경산대학교〉

경산대학교 개교 15주년 기념 발전기금 조성 서화 초대전

(1996. 2. 3 ~ 11, 대구문화예술회관, 177명 초대출품)

〈사례 4.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개교 45주년 기념 발전기금 조성 기증전

(1999. 5. 6 ~ 15, 계명대학교 대명동 도서관)

5. 전제조건 및 기대효과

“세계청년비엔날레”는 기념사업회의 향후과제인 장학재단 설립과 연구소 설립 기반조성에 기여하며, 기금조성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사업회의 임원과 회원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각별한 관심, 상호유기적인 참여와 역할분담으로 출판작품의 매진을 위해 합심하여야 한다.

“세계청년비엔날레”는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처음 시도되는 기념축전으로서 장학기금조성은 물론 국가지원에 의존하는 다른 민주운동기념사업회와 비교하여 차별화될 것이다. 아울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개관을 통해 통상적으로 회전되고 있는 기존 사업의 재점검 및 평가와 더불어 향후 재원확보를 위한 정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자활적인 재원 조성 운동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6. 결언

2·28 민주운동 제1세대들은 사단법인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라는 제2의 터전에서 머물다 간다. 우리가 애착을 가지든 아니든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는 현재 여기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재능을 기부하면서 열심히 최선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앞으로 장성하여 변창할 차세대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여기에 서만 안주하지 않고 범세계적인 2·28 민주정신의 비상을 꿈꾼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넓고도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만약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허황된 발상이다.” 또는 “이런 행사는 아직 필요치 않으며 결과에 대해 회의적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세계청년비엔날레에 출품하는 작가들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차세대 작가들이며, 외국 작품 또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므로 기금조성의 현실적 가능성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필요성을 공유하는 기념사업회 구성원들은 합심, 협력하여 출판작의 매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출판작을 소장하여 가까이서 감상한다면 고매한 지혜를 체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미술품 감식력, 수신, 정서순화, 좌우명 등으로 “1점 다익”을 확신하는 바이다. 그리고 노력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장학기금의 조성은 장학재단과 연구소 설립에 매우 큰 힘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무쪼록 앞으로 개최될 “2·28민주운동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세계청년비엔날레”의 성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 및 세계화를 소망하는 바이다. ■



대구도시철도 1호선 ‘명덕역’ 에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이름을 같이 쓴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몇 년 전에 현안 사업으로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 바가 있다.

대구광역시의 문화적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사업인 2·28민주운동정신의 시민정신으로 승화·발전시킴과 역사적 의의가 있는 곳들을 하나로 어우르는 “2·28문화존” 설치(2·28로(路), 2·28역(驛) 지정, 2·28민주운동 조형물 설치, 2·28민주운동거리 조성 등)를 위한 별첨 사업을 건의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1일, 대구시 도시철도 1호선 ‘명덕역’ 에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역’ 이름을 함께 쓰도록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규정을 변경하였다.

이미 명덕역은 역명 유래에서 명덕네거리는 2·28의거 다음해인 1961년에 기념탑이 있었던 장소로 소개가 되고, 지난해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완공을 계기로 이번에 역명을 명덕역과 함께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을 병기하고 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명덕역에 도착할 때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 가실 분은 이곳에서 내려야 합니다.’라는 안내방송을 듣는다. 기념관을 방문하려면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역’에서 내려 4번 출구로 나가면 기념관을 가는 빠른 길이다. 🚶

2·28민주운동 지난 과거의 시간에만 머물지 않기를

2·28민주운동 대구의 자긍심으로 우뚝 서다
2·28민주운동 대구시민의 마음속에 자리잡다



강 태 길
도서출판 작은행복 대표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의

대구의 2·28민주운동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역사학자가 아니라도 3·15마산의거나 4·19민주혁명의 그 출발점이 바로 2·28민주운동이며, 특히 당시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였다는 데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8민주운동에 관한 자료를 조금만 찾아보면 1960년 당시 자유당 정권의 부정, 부패, 실정, 빈곤, 불법적 인권유린은 이승만 정권이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 국민들의 파탄에 빠진 삶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나아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까지 누리지 못하게 하는 독재의 극한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항거한 민주적 저항운동이었던 것이다.

대구에서 시작된 2·28민주운동과 3·15마산의거를 거쳐 정점에 오르게 된 4·19민주혁명이 결국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민주화의 길로 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당시 2·28민주운동의 단서를 제공한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이 어떤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TV에서도 드라마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지만 이승만 정권은 말 그대로 정권연장이라는 목적에만 눈이 어두워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급급했고 그런

가운데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하고 어려워졌던 것이다. 더욱 국민들을 힘들게 한 것은 자신들의 무능을 눈속임하기 위해 선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쳤던 것이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시 수성천 변에서 야당 부통령 후보인 장면박사의 선거 연설회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이 연설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하여 일요일에 시험실시, 노래자랑, 토끼잡이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대구시 공립 고등학교에 학생 등교를 지시하였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자유당정권의 도를 넘은 불법 부정에 항거하여 교문을 박차고 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일요일 등교지시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정권의 부정과 불의에 대한 항거였던 대단하고도 엄청난 사건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결코 대구의 2·28민주운동은 그 역사적 의의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속에 박제된 2·28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결코 짧지만은 않은 역사와 의미를 지닌 2·28민주운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가를 우리는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말하고자 한다.

선배세대가 어렵게 이뤄놓은 2·28민주운동의 정신이 과연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그 정신을 오롯이 계승해 나갈지 보다 분명히 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말할 때 유구한 5천년 또는 그보다 더 거슬러 일만년 역사를 서슴없이 자랑하기도 한다. 물론 당연히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가질 만한 민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먼 역사 즉, 오랜 시간이 지나 문헌이나 유물이 아니면 가물가물할 수 있는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금방 본 것처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제 반세기가 지난 우리 지역의 대표인 역사적이고도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리도 무관심과 외면의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

참으로 궁금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들고 남의 역사도 힘으로 뺏아서 자기들 역사라고 우기기도 한다. 물론 그것이 잘하는 행위라고 부추길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는 우리 지역 대구의 2·28민주운동이라는 대단하고도 엄청난 사건이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 속절없는 애석함을 토로할 뿐이다.

이에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2·28민주운동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실마저도 정말 “그냥 그때 그랬었지” 정도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어



리석은 것인지를 한번쯤 생각하고 바뀌보자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대구시민과 2·28민주운동

우리나라만큼 민주화운동이 치열하고 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나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이념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지난 우리의 역사 특히, 현대사를 살펴보면 지금의 우리는 우리들 선배세대에게 무한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말이다.

그만큼 우리의 선배세대들은 우리들에게 현재의 물질적 풍요와 안정된 사회 기반 그리고 다양성이 보장된 사회참여 기반을 물려준 것이다. 무엇보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바탕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념적 토대가 민주주의였으며, 그것을 그 어떤 다른 가치보다 우선하였고 그 가치를 위하여 목숨도 불사하는 굳은 결의와 실천을 하였던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런 선배세대들인 것이다.

그 민주운동의 실천에 있어서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바로 2·28민주운동인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 바로 4·19민주혁명일 것이다. 그 4·19민주혁명의 불씨가 3·15의거이며 그에 앞서 대구에서 현대 한국사 최초의 민주운동인 2·28이 그 효시인 것이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런 역사적 사실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랑스런 역사를 현재 얼마나 알고 있고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자연스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민주적 이념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어렵게 지켜온 선배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의무인데 말이다.

2·28민주운동을 무조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 우리 시민이라면 최소한 2·28민주운동이 어떠한 역사적 사실인지를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최소한의 시민의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물론, 이러한 지역민의 염원과 범정부적 관심 및 지원 아래 이번 2월 28일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이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대히 개관하였다는 언론의 소식을 듣고, 직접 참관하여 보기도 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 감히 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기념관이 물질적 기반위에 세워진 하드웨어 분야라면 이제부터 그곳을 다양한 프로그램과 2·28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시민과 더불어 하는 2·28민주운동의 산실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개념의 사업들이 더욱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

아쉬움을 극복하는 데 주저함이 있을 수 없다

지난 2월 28일 2·28민주운동 53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셨는데 김범일 시장이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민주정신이 우리나라를 더욱 반듯하게 세우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자신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으며, 김범일 대구시장의 축사에서 그 연장선상의 발언이었는데, 대통령과 대구시장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2·28민주운동의 고귀한 정신이 앞으로 더욱 계승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점이라는 것이다.

이제 지나온 시간이 지금까지 오기 위한 인내의 시간과 노력이었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은 바로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대구시민들이 함께 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생명력 있는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매뉴얼화하는 것이다.

단순히 고귀한 정신 계승이라는 의미만으로는 지금의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의 구성원이 시민들에게 접근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의 전개를 통해 알려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2·28민주운동이 그 실천의 중심이다

대구에는 2·28민주운동과 더불어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독립운동의 3대 정신이 깃든 명실상부한 우리 역사의 고귀한 혼이 담긴 곳이다. 더 이상 패배의식이나 소비도시 등등의 부정적인 개념을 우리 스스로가 타파하고 위의 고귀한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의 대구브랜드를 창조해 나가는 데 모두가 합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 강태길 <도서출판 작은행복 대표>

잡지발행과 출판 및 사업기획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기획과 디자인 전문기업 기대닷컴과 행복한강자연합회 그리고 사단법인 아트밸리에서 기획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현재 생활문화 교양지 월간 작은행복을 창간준비 중에 있다. 또한 개인 홈페이지 강플랜닷컴을 통해 자신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일들 특히, 금연실천과 갯바위 산행 그리고 헌혈봉사를 3대 행복으로 삼아 글로 남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 help@happyup.net

소설가 故이태원 형을 그리며

홍 중 흙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고문



이태원 형이 작고한 지도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다. 무정한 것이 세월인가 보다. 경북고에 다녔던 고교 시절의 동기생이란 인연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욱 돈독하게 지속되었던 형과 교우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2·28당시 주역으로서는 더물게도 소설가가 되었기에 더욱 유별나게 지낸 사이다. 고향 후배들이 기념비를 세우고 문학관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게되니 생사가 갈라놓은 세월이 실감나는 현실로 다가오고 지난날의 정이 뭉클해진다.

이태원 형은 그렇게 사교적이 아니었다. 나도 별로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다 보니 학교시절에는 자주 어울리지는 못했다. 내가 매일신문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서로 잊고 살다가 입사 이듬해인 1970년 동아일보가 창간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장편공모에 <객사>로 당선되면서 같은 문필업을 하는 처지에서 교우가 이어지게 되었다. 당시 동아일보의 장편소설공모는 창사 50주년이란 타이틀도 있지만 창사이래 처음으로 원고지 1천매 이상으로 공모했고 게다가 신문소설로는 이같은 볼륨의 공모가 당시까지는 없었던 터라 여기서 당선되었다는 것은 한국문학사에서 대단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언론에 크게 소개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작가로서의 위상이 단번에 높아진 것이다. 당선작이 동아일보에 연재소설로 게재되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열독자가 되었고 이 형은 대구에 올 일이 있으면 나를 찾았고 나와 몇몇 친구들은 두고두고 그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많은 담소를 나누었다. 경북고 동문으로서는 드물게 소설가가 탄생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동문들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객사는 칠곡과 팔공산을 무대로 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에게도 주목을 끌었지만 소설의 시대설정이 3.1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이 이전에 다른 작가들이 다루지 못했던 특징을 지녔고 이 때문에 더욱 폭넓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3·1절을 소재로 한 연극과 드라마에서 이 소설을 대본으로 쓰면서 많이 부각되었고 이 형은 상당한 성가를 날리는 소설가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장편당선이 “소설, 시, 시나리오 등 스물여섯 번의 공모 끝에 얻어진 결실”이라고 스스로 술회했을 만큼 술한 인고의 정열을 쏟았던 것이고, 당선 후에도 문단 활동이 쉽지 않아 7~8년의 방황과 습작의 시간을 보냈다. 사교적이 못 된 그의 성격 때문에 당선의 영광을 십분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뒤 1978년 지방언론에 이성계의 조선조창업을 다룬 장편소설 <개국>이 연재되면서 다시 문단에 이름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이 작품의 연재가 끝난 후 1983년 KBS가 이를 드라마로 방영하면서 이른바 뜨는 작가가 되었다. 당시 이 드라마는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타이밍이 맞아 폭발적인 시청율을 올렸다. 사실 이 작품을 집필하고 발표한 것은 전두환 정권의 탄생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드라마가 이때 방영되었고 테마가 이성계의 개국과 전두환의 집권을 오버랩해서 볼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 형에 대한 엉뚱한 비난과 모략도 있었다.

대하드라마가 방영되면 작가에게 많은 금전적 혜택과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세태인데 이 형은 <개국>이 방영될 때도 나에게 이런저런 많은 불만들을 털어놓았다. 내가 오히려 의아해서 물어보면 드라마 원작 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잘못해 별로 큰 돈을 받지 못했고 드라마 구성도 자신의 작품의도와 너무 동떨어져 방영 내용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늘상 “방송국에 속았다”고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때가 이 형에게는 가장 황금기였지만 생활고를 떨쳐버리지는 못했다.

대구경북지방으로서는 그의 작품 <낙동강>이 매일신문에 연재되어 주목을 받았던 것이 특기할 만하다. 낙동강 시대가 열리고 낙동강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에 집필된 것이어서 그 뒤 그의 문학적 업적이 묻혀버리고 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강 문화에 대한 저술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요즘에 쓰여졌더라면 새로운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의 주요작품으로는 단편소설로 <밤길>, <줄고 있는 말>, <돌을 던져라>, <사명> 등 20여편이 있고 중편으로는 <유야무야>, <우리들의 죽음>이 있으며 장편단행본으로는 앞서의 <객사: 상 하>와 <개국: 전7권>외에 <0의 행진>, <초야>, <꿈꾸는 버리지들>, <가로동>, <낙동강>, <우리들의 봄춘자> 등이 있고 기타 신문 잡지 등에 많은 수필, 칼럼 등도 썼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생활고와 건강문제로 별로 작품활동을 앓았지만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면 그의 세상경험과 천부적 이야기꾼으로서의 역량으로 보아 아직도 작품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태원 형은 1942년 경북 칠곡구읍(현 대구) 읍내동 578번지에서 태어나 2008년 3월에 세상을 떠났다. 자신의 회고에 의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문학수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사실 고교졸업 후 이 형을 만나기 어려웠던 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는 이미 고등학교시절부터 문학공부에 열중한 나머지 졸업후 문학소재를 얻기 위한 세상공부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떠돌며 살았던 곳은 서울, 대전, 대구, 단양, 경주 등이었고 막노동을 비롯 온갖 일을 했다는 것이다.

20대에 술한 세파에 시달렸지만 이 형의 품모는 항상 단아한 선비였다. 청간스러운 성품 때문에 <개국>이 드라마로 방영될 무렵만 해도 이른바 TK전성시대였고 청와대 방송국 등에 가까운 선배들이 포진해 있었지만 그들의 득을 보지 못했다. 어렵지않게 이들을 만나 집필에 여러모로 편의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문인으로서의 영달을 위한 잔꾀를 부릴 줄도 몰랐다. 이 때문에 같은 TK출신 문인들은 학맥이 닿지않았는데도 권부에 있는 선배들을 소개받아 오히려 이들이 득을 보게 되기도 했다. 당시는 권위주의 정부여서 권력의 도움이 문단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 형은 오히려 이를 멀리했고 자신이 피해를 입고도 권력을 이용하지도 않았다.

이 형은 문학의 성향에 있어서도 신문소설을 썼지만 문체는 비상업적이었다. 지금도 많은 저명문인들은 자신의 작품 성가를 올리기 위해 언론사와 평론가, 출판사 등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팬 관리에도 적잖게 힘을 쏟는다. 그러나 이 형은 지인들이 상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충고를 해도 별로 귀기울이지 않았고 꾸준히 자신의 문학적 지평만 바라보고 활동했던 것이다. 특히 1973년에는 자유실천문인협회 창립에 참여하면서 당시 지명도가 높던 문인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선비다운 성격 때문에 문단활동에 도움을 받을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다. 문필업이 본래 외톨이 업이지만 이 형은 철저히 고독한 문인의 길을 걸었고 고독의 산물인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래서 더욱 그의 작품이 산일되지 않도록 한데 모아 후대에 제대로 평가될 날을 기다려 보고 싶은 마음이다.

2008년 병고에 들어 1년여 신고를 하다 작고했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내 앞에 앉아 몇 시간이고 자신의 생각을 담담하게 말하며 담소하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선연하다. ▮

주먹역, 구구역



여울 마 대 북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2014년 하반기에 개통된다고 한다. 개통에 앞서 올 가을엔 시범운행을 한다고 하니 하늘 열차의 모습을 본다는 게 기대가 된다. 축하할 일이다. 북구 학정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24.9km를 모노레일로 건설되고 있다. 도시철도 본부에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역 이름을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30개 역 이름을 5월 20일까지 공모한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름을 지으리라.

그러나 기존 전철 이름처럼 동네 이름을 따서 짓는 이름만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린이들의 꿈을 담아서 하늘의 별 이름을 따서 지으면 어떨까.

북두칠성역-샛별역-은하수역-시리우스역-아크투루스역-베가역-스피카역-폴룩스역-리겔역-

꽃의 마음을 담아서,

무궁화역-진달래역-쫄래꽃역-장미역-채송화역-목련역-동백역-수국역-

훨훨 나는 새 이름을 따서,

독수리역-비둘기역-까치역-참새역-앵무새역-두루미역-황새역-오리역-

자연환경을 생각하여,

전나무역-소나무역-능수버들역-자작나무역-팽나무역-싸리나무역-대나무역-



과일 이름을 따서,
 사과역-감역-배역-딸기역-밤역-대추역-청포도역-청매실역-살구역-오미자역-
 약령시장을 위해,
 만병초역-인동초역-쇠무릎지기역-애기똥풀역-쥐눈이콩역-감초역-산삼역-
 산 이름을 따서,
 팔공산역-비슬산역-한라산역-백두산역-금강산역-지리산역-청량산역-금오산역-
 대덕산역-
 강 이름을 따서,
 낙동강역-한강역-섬진강역-영산강역-금강역-대동강역-암록강역-두만강역-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대구역-평양역-개성역-도라산역-서울역-대전역-광주역-포항역-부산역-
 지구촌 시대에 걸맞게,
 워싱턴역-런던역-북경역-파리역-동경역-베를린역-모스크바역-싱가폴역-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말인
 어머니역-아버지역-사랑역-연애역-결혼역-누나역-오빠역-친구역-
 문학인의 이름을 따서,
 상화역-빙허역-해송역-소파역-소월역-노산역-인성역-태준역-봉황터역-
 위인 이름을 따서,
 세종역-을지역-김유신역-이순신역-안중근역-안창호역-유관순역-전봉준역-.

그러나 이런 이름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구 남구에는 대명1동에서 대명11동까지 있다. 그런 식이라면 3호선 주먹 1호역-주먹 2호역-주먹 3호역 ----- 종착역은 구구 30호역으로 이름을 지을 수도 있으리라. 앞에 산이 있다하여 앞산이라는 개성 없는 이름을 짓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반월당역은 옛 백화점 이름으로 그곳엔 백화점만 생기지 않은가. 반월당역이 가까워지면 “현대백화점에 가실 분은 이곳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안내가 나올 바엔 “이상화 기념관에 가실 분도 이곳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고 안내하면 얼마나 좋으리. 명덕역에서는 “이번 역은 명덕역입니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안내다. 2·28 민주화운동은 3·15 마산민주화운동, 4·19 민주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한다. 차제에 2호선 전철의 명덕역은 2·28 민주역으로 하고 제3전철의 환승역은 명덕역으로 하면 어떨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고쳐야 할 역명이 또 있다. 2호선 전철을 타고 스타디움에 가려면 대공원역에서 내리라고 한다. 초행길인 사람들은 꼭 물어보는 말이 있다.

“이곳에 서울대공원같이 동물원, 식물원도 있고 서울대공원보다 더 크나요?”

웃으면서 대답한다.

“예, 까치도 있고요, 까마귀도 있고요, 비둘기, 산토끼, 뱀, 산새, 들새 다 있지요. 하늘, 구름, 바람, 밤엔 별도 있습니다.”

고 대답하면 의례

“사자, 코끼리, 원숭이 같은 동물도 있느냐?”

고 물어온다. 이쯤 되면 말문이 막힌다.

대공원엔 세계육상경기를 치른 스타디움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공원역이라고 거짓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을 한다. 학생들이나 타지에서 온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일이다. 대구시민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일이다. 스타디움역이나 다른 이름으로 하루빨리 바뀌야 할 일이다. 아니면 ‘100년 후 대공원역’이라고 소개하던가 말이다.

동, 서, 남, 북에 버스정류장이 있다. 기차역도 대구역보다 동대구역이 더 크다. KTX 열차도 동대구역에서만 정차한다. 우리민족의 열이 담긴 무궁화 열차의 이름이 사라져 가듯이 대구의 상징도 동대구로 바뀌어 가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 동대구역을 대구역으로 바꾸면 어떨까. 대구는 명품 사과가 최고의 가치로 알았었다. 대구에 가면 거리나 골목, 관공서나, 학교마다 사과 나무가 있고 집집마다 가을이 되면 사과 향기로 도시 전체가 가득할 줄 알았다. 막상 대구에 와 보니 사과나무 한 그루 볼 수가 없다. 시청이나 공공기관에 명품 사과나무를 심어 대구의 사과 고장 가치를 높여야 한다.

우리는 5천년 역사를 지닌 문화민족이다. 흥과 멋의 민족이다. 대구는 문학인들이 제일 많은 도시다. 이런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 이름 하나를 짓더라도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야 한다. 이번에 개통을 앞둔 3호선은 최첨단 기술로 운전자 없이 무인운행을 한다고 한다. 안전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기를 바란다. 중앙로역 전철 참사가 생생하게 각인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한 번 이름을 지어놓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문학인들은 역명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다. 아들, 딸, 이름 하나 짓는 데도 작명가를 찾아가고 족보를 찾지 않았던가. 밤잠을 설치며 며칠을 고심하지 않았던가.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역 이름을 찾아주세요.”

대구도시철도의 간절한 호소에 ‘주먹역 구구역’ 이름이 탄생되지 않도록 대구시민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2·28 그리고 반세기 · 8



김 광 수

삼화 하나, 선비정신 2·28정신

대한민국 직전의, 근대국가 조선이란 나라는 보면 볼수록 묘하다. 이상한 나라다. 이성계의 역성혁명은 역사적 현실이라 치고 유학을 유교로 개칭하여 국교 겸 내치의 기본으로 삼은 것도 수상쩍거니와 외치로 내세운 사대교린은 역사왜곡이라 믿고 싶을 정도다. 중국을 제국으로, 스스로는 제후국으로 전락시켜 나라이름조차 낙점 받았다하니 유구무언으로 할 말이 없다. 유학은 공자를 비롯한 유가 5인방의 학문이고 인간윤도를 정리한 실천철학이다. 학문과 윤리도덕으로서의 가치는 최고라 해도 종교는 아니다.

왕자의 난, 왜란 호란을 필두로 한 무수한 내우외환들, 탁정, 사화, 탄 나라에는 양껏 어질고 제 백성에게는 모질고 독한 관리 등으로 봐서는 금방 망할 것만 같은 나라가 반 천년을 견뎌낸 것이 기특하기까지 하다. 전후기를 대표하는 세종과 정조, 위대한 이순신이 있었다 해도 몇 분만으로 나라를 지탱,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뿐인가 어디. 한글, 시조, 가사, 고대소설, 백자, 거북선, 판소리, 김홍도 기타 유형무형의 문화재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선비가 있고 벼슬아치가 있다. 선비는 한자어로 사士, 벼슬아치는 대부大夫에 해당하는 말이나 내용은 다소 다르다. 선비는 학문연구와 문학적 정진을 통한 절대가치 구현에 매진하기 위하여 벼슬길을 포기한 문인학자다. 남산골샌님 딸각발이가 대표선수다. 벼슬아치는 올곧은 역량과 정

신을 바탕으로 등용된 관리다.

벼슬아치, 벼슬에 아치를 붙인 단어다. 아치는 특정계층이 스스로를 낮춘 접사였다 한다.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선비에 비해 격하시킨 부분이다. 권력과 부를 동시에 쥔 수 있는 벼슬자리를 평생에 적빈하게 살아야 하는 선비자리 아래로 본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선비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자를 가르치는 일뿐인 듯하다. 배워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일상과 정신이 사도 아니겠는가. 진선미의 실천궁행을 위하여 부귀영화를 포기하는 선비정신, 청빈이라 하여 가난을 자랑으로 여긴 그들, 충분히 감동적이다. 비로소 오백년 조선의 비밀이랄까 실마리가 일정부분 풀린다.

조국의 현실은 어떤가? 혼탁한 세태다.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저돌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고, 다음은 누린다는 풍조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만연한 분위기다. 천민자본주의의 전형 아닌가?

문득 국어학자 일석 이희승李熙昇과 소설가 황순원黃順元이 떠오른다. 정권의 정통성이 치명적 약점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일석에게 밀사를 보낸다. 국무총리로 모시겠다는 밀명을 더붙여. 그 말을 들은 일석은 대로하여 꾸짖는다. 학자를 정치권력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이 요체다. 그리고 스스로 참담해 한다. 자신의 모습에서 그런 욕심이 내비쳤던 것이라고, 내 탓이라고. 당대최고의 시조와 수필을 쓰면서도 문인 칭호를 민망스럽게 여긴 일석답다. 그 말을 전해들은 황순원,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하니 선비정신의 극치 아닌가. 일석의 자전수필집 『한 개의 돌이로다』(1971) 등에서 간추린 일화니 겨우 사십여 년 전 일이다.

전란과 식민지시대를 거치는 동안에도 꺾이지 않았던 선비정신이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벼슬아치들이 선비정신을 망각한 데 기인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광복, 분단, 육이오의 와중에서도 그 정신만은 스러지지 않았다. 탐관오리들의 부패와 가렴주구가 보릿고개란 죽음의 고개에서 백성을 굶겨죽이고 있을 때에도 선비들은 꾹꿨다.

일석과 황순원이 단적인 예다. 두 분의 청량한 정신과 아름다운 삶은 남명南冥 선생의 두류산 그늘을 이었고, 두 분 전후에도 선비와 선비정신은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덕분에 광복세대인 필자도 서울대학교총장은 대통령맞잡이로 배워, 그렇게 알고 살았다. 그런 분들이 어디 장관자리 없나,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다. 의식주가 해결된 지 꽤 오래인 나라 아닌가. 문화권력이란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에 거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선비정신을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이성정리인 학문과 감성표현인 문학과 인간교육 등 선비의 업이 전문화된 지가 언젠데, 사계의 권위들이 명성수준도 아닌 자리와 인기의 안부鞍部를 바장인다면 무섭다가 슬플 것이다.

삼화 들, 반세기만이 해후 그리고 화려한 슬픔

고교시절 2·28을 주도한 대구의 고교생들이 서울소재 대학을 포기하고, 세칭 지방대학생 자칭 촌놈대학생이 된 것은 순전히 2·28에 대한 애정이고 자부심이었다.

그들이 초대회원이 되어 결성한 학술토론클럽이 2·28사상연구회와 영남대학교의 대맥회大脈會였다. 대맥, 2·28의 맥을 잇는다는 뜻인 듯싶었다. 큰 맥이라도 좋고, 맥을 크게 잇는다는 뜻이라도 좋았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내가 아는 한 이 둘뿐이었다.

그들의 모임, 거리를 두고 먼 데서 본 대맥회도 지근거리에 본 28연구회도 청춘남녀, 나아가 여느 대학생들의 모임과 다를 바, 바이없었다. 모여서 동서고금을 왔다 갔다 오르내리며 떠들어대고, 여학생의 입회를 목이 빠지고 두 눈이 쏟아져 나오게 기다리고, 알량한 주머니를 탈탈 떨어헤서 학교부근의 목로주점을 찾아 막걸리나 막소주 마시면서 기고만장이고, 마지막에는 저마다 서울대학교 따위를 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안 간 것이라 강변한 다음 헤어지는 것이 전부였다.

혹은 노래를, 혹은 그림을, 혹은 영어회화를, 혹은 등산을, 혹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삼는 동아리들처럼 그들도 동서고금의 고전과 양서를 읽는다는 지향점과 목표가 있었다. 그마저 닳은꼴이었다. 이쯤에서 작중화자를 자임하나 구경꾼인 내 소개다.

1945년 광복원년에 태어난 나는 철두철미 구경꾼이었고, 촌답이었다. 답떠인 동갑내기들은 광복 전후 태어났거나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다. 나는 만삭인 어머니 뱃속이었다. 대한민국공화국 정부수립 당시엔 서너 살, 6·25 막바지에 초등학생이었다.

2·28당시에는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 수성못이 어찌고 용두방천이 어찌니 떠들어댔어도 아는 것은 쥐뿔로 아예 없었거나 개 코만큼도 아니었다.

일 년의 재수 아닌 낭인생활 끝에 구사일생 대학에 들어가니 1965년이였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나 고2였던 2·28원년세대는 거의가 4학년이었다. 3학년이 가물에 콩 나기로 드문드문했으나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거기서도 나는 구경꾼에 손방이었다. 선배회원, 특히 선배회원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명패인 양 달고 다니는 2·28정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전공과목을 필두로 선배들이 권장하는 고전과 양서들 많이 읽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와 소설 읽고, 학점 아야무지게 따서 장학생 유지하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나만 모르는 그 무엇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4·19에 이은 5·16, 당시의 대학가는 데모천국 아니면 데모지옥이었다.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정상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다. 화려한 슬픔의 계절로 표현되기는 해도 대학시절은 나이만으로 이미 청춘의 절정이었다. 그냥 구경하고 훑쳐보기만 해도 신나는 방년의 여학생만 해도 그게 어디라고. 그러나 5월로 들어서기만 하면, 11월 중순이면 데모였으니 기가 탁탁 찰 일이었다. 끔찍했다.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돌아가자. 대학 4년은 강물 같은 시간이었고 바람세월이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내가 졸업하던 당시에는 2·28사상연구회의 줄인 말인 28사상, 28연구회란 명칭도 가물가물해지고 2·28사상연구회만 남았다. 선배회원들의 말이 귀에 쟁쟁하다.

“4기, 저것들 28사상을 말아먹을 거야. 하나같이 비리비리하니, 28정신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어렵겠지, 암만!”

왕년의 2·28사상연구회 회원들이 2013년 새봄에 향도부산에서 만나다. 실로 50년만의 일이었다. 졸업 후 우리들을 뿔뿔이 헤어졌다. 저마다 살길을 찾아서였다. 현재까지 남은 회원은 서울과 대구에 각각 10여 명 정도, 부산 3명, 경주 일원 3~4명, 30명 못 미치는 숫자였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원년선배들이 사랑하는 28사상이 몇 해까지 갔는지 모른다. 나이 70을 훌쩍 넘긴 1회부터 환갑 넘기고 정년이 3년 안팎 남은 후배가 만년 총무인 것으로 보아, 10회 남짓할 것이라 짐작할 따름이었다.

모인 인원은 정확하게 10명이었다. 살아온 날의 차이만큼 직업들은 다양했다. 신문사논설위원, 은행지점장, 고급공무원, 전문연구원, 퇴직교사 부부, 현역도 만만치 많아서 변호사, 미소금융 대표이사, 해운업오너, 교수까지였다.

고인이 된 회원, 와병 중인 회원, 소식이 두절된 회원 등은 우리들을 우울하게 했다. 살아있어서, 그나마 여행이 가능해서 모임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짊어지면 빛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이치였다.

나이만큼 늙었다. 피곤하고 심심해 보였다. 모인 사람 모두가, 퇴직교사인 나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었기에 안타깝기까지 했다. 자갈치횃집 수변공원이 바로 보이는 곳에 앉아 담소를 나눈 시간 4시간,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졌으나 예전의 것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모두가 이심전심 혹은 무소설로 대학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화려한 슬픔의 계절, 젊었기에, 저마다 보물섬처럼 숨기고 있는 꿈이 있었기에 극복이 가능했던 현실적 슬픔, 그래서 화려한 슬픔이었다.

정치 이야기, 자식과 경제력 등 집안 사정, 현재의 살아가는 구체적 모습, 예술 문화 등으로 고상떨기, 등은 금기이고 금지된 화두였다. 그래도 모임 내내 이야기는 끊어지지 않았다. 가볍게 의식적 의도적인 가벼움,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삶의 가벼움으로. 공통점이 있었다.

적어도 드러난 분위기만으로는 거의 모두가 골통보수였다. 청춘시절 젊은이는 전투적 진보주의자가, 장가들기를 필두로 나이 들어가면 저절로 온건보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속설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는 듯싶었다. 만남의 끝,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성공한 현역오너의 뜬금없는 말이 백미에 대미였다.

“박근혜 대통령, 세계제일의 미녀대통령이다, 아나!”

원론주의자 C 형 정전 2

다시 한 번 원론 C형의 말이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취임인사라기보다는 저의 인생전반에 거친 철학입니다. 저의 역사 철학 학교철학 생활철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나아가 예술철학이 회원 여러분과 공감대

를 형성할 때 비로소 회장직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졸업과 더불어 자원입대, 최전방복무, 제대 후 자신의 유일한 직업이라 자기최면을 걸듯이 강조한 언론인의 길, C형은 부산최대의 J신문사에 입사했다. 하도 성적이 우수하여 시험관과 채점관인 선배기자들이 오히려 걱정할 정도였다는 것은 부록으로 들은 후문이었다.

당시 전국적으로도 독자수가 5위 안에 든다고 자부하는 신문사였고, 부산과 경남 지역사회 최고의 신문이었다. 경상남도 도청소재지로 부산이 경남까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절이었다. 라디오 방송은 있어도 텔레비전 방송은 없던 시절이었다. C형이 언론인이 되고 수 년 지나 KBS TV, 곧이어 MBC TV가 겨우 걸음마를 시작할 정도였다.

일간지가 조간 석간으로 하루에 두 번씩 발행되던 시절이었다. 가히 종이신문 전성시대였다. C형의 언론인 인생도 탄탄대로로 보였다. 문제는 그의 원론인생이었다. 타협을 모르는 그의 직장생활, 나아가 사회생활은 그를 독불장군으로 만든 것 아닌가 싶다. 그 절정이 5공 시절 언론통폐합과 그에 대응한 C형의 모습이었다.

자산과 명망과 독자수가 압도적으로 크고 많은 J신문이 그보다 작은 신문사의 신문으로 통폐합된 후, 그는 작은 신문사로 가지 않았다. 통폐합 자체가 정도가 아닐 뿐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나아가 기자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정권이 바뀌고 통폐합에서 다시 자주독립한 후, 그제야 C형은 복직했다. 그 사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단지 평탄한 세월 단정된 생활은 아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밖에 없다. 술가하여 부산으로 옮긴 이후, 인편으로 혹은 바람결인 양 지나가는 소문으로 J신문사를 그만두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뿐이었다.

선비정신에 이은 2·28의 화신이었던 원론 C형의 지나치게 단정한 모습, 요즘 간간이 C형이 떠오른다. 보고 싶기도 하다. ▮

대구출생. 1971년 단편소설집 『여행자들』 상재.

영남일보 객창소설 「간이역에서」 연재.

전작장편 3부작 『빈 들』 외 소설집 10권.

시집 『새벽찬가』 외 7권.

평전 『김광수의 명작읽기 1 2 3 4』(FM101.1 FM89.9에서 주1회 연10년 방송).

1970년~80년대 시와 소설 동인지 <모국어> 저자대표.

부산문학상, 부산예총공로상, 여산문학상, 요산창작기금상(요산문학관),

고운최치원문학상 대상.

현 부산문협소설분과위원장, 소설인협회장,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무료한 하루



강 지 희
시인

멧새소리를 필사하다
시집 밖으로 날아오르는 새소리 듣다
미뤄둔 설거질 하며 배수구 속으로
캄캄하게 물소리처럼 씻겨 내려가다
툭툭거리는 세탁기 속에 들어가
하늘색 그의 소매와 뒤엉키다
작은 입김에도 낭창낭창 춤추는
긴기아 꽃줄기 옆에 쪼그려 앉다
오후의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가
텔레비전 밖의 나를 쳐다보다 겨우내
창문에 끼여 있던 우울을 털어내다
발에 채이는 시간으로 큼지막하게 떠서
허기를 채우다 러블리 소파 안아보다
거실바닥에 떨어진 단추 하나
어디쯤 내팽개쳐둔 무관심일까 생각하다
가을 하늘에 해금이 있다* 머리맡에
잠시 마른 날갯 접고 누웠다
열린 창 너머 불어오는 바람에
푸드덕 날아가는 한 마리 무료

*김선두 화백의 그림

2009년 문화일보 신춘문에 시 당선



한 점으로



최 시 호

수필가

태어나는 모든 것은 한 점으로부터 태어난다.

채송화.

내 작은 누이처럼 작지만 강렬한 꽃. 빨강 노랑 분홍의 개성이 뚜렷한 꽃. 어릴 적 집 마당에는 한여름이면 채송화가 만발하고 그 꽃들 위로 벌들은 하루 종일 웅웅거리며 잔치를 벌인다. 매미의 울음소리가 잦아드는 여름의 끝자락이 오면 꽃은 시들고 오므린 꽃잎 아래서 자란 씨방이 열린다.

한옥집 문은 모두 창호지가 발려져 있다. 심심할 때면 창호지를 바늘로 찌르는 장난을 했다. 엄마에게 들키면 겨울에 바람 들어온다고 혼이 나지만 푹푹 뚫어지는 소리와 느껴지는 촉감의 유혹에 빠져들곤 했다.

채송화 씨앗은 작다.

바늘에 찔린 창호지의 구멍만큼 작다. 씨앗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 작은 점이 어떻게 크고 고운 꽃이 되는지 신기해하며 이리저리 굴러보기도 했다.

고향집 시골 들판의 개울에는 개구리 알이 많다. 소복이 모인 알마다 검은 점이 하나씩 있다. 이 작은 점이 자라서 꿈지락거리는 올챙이가 되는 모습에 빠져 봄날 햇살이 따가울 때까지 앉아 있었다.

개미굴 파기도 가끔씩 하는 놀이 중 하나다. 느닷없는 공습에 일대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깔깔 웃기도 했다. 도망가기 바쁜 개미들이지만 입에 하얀 점을 하나씩 물고 도망간다. 개미 알이다. 그때 나는 알았다. 흰 것도 검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과대학생 시절 산부인과학을 배울 때, 수정 시 수억 개의 정자 중 어떻게 하나의 정자만 난자의 막을 통과하는지 - 난자의 막에 제일 먼저 도착한 정자가 머리를 밀면 정자의 머리 부분에서 어떤 효소가 분비되어 난자의 부드러운 바깥 막을 전광석화와 같은 짧은 순간에 철벽으로 만들어 다른 정자의 머리 박기를 불가능하게 한다. - 는 교수님의 강의에도 반신반의하며 경이로워 했다. 그러나 비뇨기과학 시간에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수많은 작은 점(정자)들이 울챙이마냥 꼬물거리는 모습에서는 그 경이로움을 찾을 수가 없었다.

어릴 적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의대생이 되면서 더욱 확실하게 알았다.

태어나는 모든 것은 한 점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자라는 모든 것은 한 점으로부터 자란다.

연꽃 핀 연못가에서 보내는 시간은 마음이 맑아진다. 향원익청(香遠益清·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향기가 더해진다)하고, 처염상정(處染常淨·더러운 곳에 피어나도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하다)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던 처녀를 생각하고, 허난설헌의 채련곡 중 연꽃을 꺾어 누구에게 던졌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은 이미 현재를 떠나 과거로 날아갔기 때문이다.

연꽃 핀 연못에 비라도 내리면 더욱 제격이다. 빗방울이 그린 한 점 작은 동심원들이 서로를 다치지 않으면서 큰 동심원으로 자라는 모습은 즐거운 덤이다.

물에 떨어진 한 점 잉크는 잉크꽃으로 자라고 종이 위에 떨어진 한 점 먹물은 국화꽃으로 자란다. 한 점 불씨는 자라 온 산으로 퍼지고 한 점 빗방울은 강물로 자란다. 조개 속에 심겨진 한 점 아픔은 진주로 자라고, 가슴 속에 스며든 한 점 슬픔은 눈물로 자라며, 마음 속 한 점 그리움은 사랑으로 자란다.

모든 점들은 사람의 속성을 감추고 있다.

사라지는 모든 것은 한 점으로 사라진다.

겨울방학 때면 시골집 낙동강가의 동산에서 연을 날린다. 분위기가 고조되면 연싸움도 한다. 연자세의 실을 서로 맞닿게 하여 밀고 당긴다. 유리 사금파리 조각을 뺨아 가루로 만들어

풀과 섞어 실에 묻혀 말린다. 당연히 유리가루 입힌 실이 상대방 실을 끊고 이긴다.

팽팽하던 연자세의 실이 “툭” 끊어지고 힘차게 꼬리를 흔들던 내 가오리연은 낙동강 건너 멀리 숲으로 가물가물 한 점이 되어 사라진다. 연이 사라진 나의 하늘에는 허전함이 가득 찬다. 나는 하늘의 고마움을 이때부터 알았다. 허전한 나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하늘은 나에게 기러기 떼를 날려준다. 좌우로만 꼬리를 흔드는 내 가오리연보다 한일자를 그리기도 하고 시옷자를 그리기도 하며 나의 하늘을 채워주는 기러기 떼. 그 기러기들은 나를 위해 노래도 불러주며 날아간다. “사라지는 모든 것은 기력기력, 한 점이 되어 사라진다. 기력기력.”

의과대학 4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때까지 정맥주사를 놓아 본 경험이 없었던 나는 응급실에서 선배에게 배운 후 시골 할아버지께 정맥주사를 놓아 드렸다. 처음에는 번번이 실패를 했다. 노인의 혈관은 경화가 되어 혈관 벽이 잘 뚫리지 않았고 힘주어 푹 뚫으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혈관 벽을 관통하여 혈관이 터지곤 했다. 나는 “할아버지, 죄송해요.”를 연발하였고 할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괜찮다. 모든 일은 경험이 필요하다.”며 또 다시 팔을 내미셨다.

할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산을 내려오며 뒤돌아보니 조금 전에 쌓은 봉분은 점점 작아졌고 할아버지는 결국 한 점으로 사라지셨다.

넓은 바다에 떨어진 좁쌀 하나는 한 점이듯 유구한 영겁에 얹혀진 100년 인생도 한 점이니 내가 가는 길도 한 점으로 태어나서 한 점으로 되돌아가는 그 길인 것을. 그러나 인연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가족을 얻게 된 소중한 기억들이 남아 있는 한 보름달 뜬 강가의 밤길처럼 되돌아가는 그 길이 결코 어둡지 않으리. ▮

경북의대 졸업
성형외과 전문의
영남의대 교수 역임
현 영남성형외과의원 원장

1997년 <수필과 비평> 등단
수필집 <개나리 꽃을 아시나요>
대구수필문학회



김연수 행정부시장 2·28기념관 순시 독려



2013. 2. 20. 대구광역시 김연수 행정부시장은 2·28기념관 개관을 앞두고 전관 시설내용을 둘러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토록 지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중구의회 의장단 2·28기념회관 방문



2013. 3. 2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인환 의장은 동료의원들과 2·28기념관을 방문, 기념시설을 둘러 보고 대구의 중심 2·28기념관을 자랑스러운 2·28정신 계승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8개교 교장, 동창회 임원 간담회



2013. 1. 31. (사)2·28기념사업회(공동의장 박명철)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개관을 앞두고 2·28 관련 8개 고교 교장 및 동창회 임원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기념관 이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하청호 이사 2·28관련 자료 기증



2013. 1. 18. 하청호 이사(아동문학가)는 본회를 방문, 1960년 2·28대구학생의거당시 2·28결의문을 작성한 경북고 하청일 형의 사진과 2·28관련 유품을 기증하고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고 환담했다.



우동기 교육감 · 2·28임원 간담회



2013. 3. 19. 대구광역시 우동기 교육감은 대구시교육청 동관 3층 본회의장에서 2·28임원 32명을 초청하여 취임 후 교육정책의 성과와 향후 교육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2013년 초·중·고학생 2·28 관련 체험현장 골목투어를 비롯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폭넓은 간담회를 가졌다.

효성여고 유네스코활동 그룹팀 2·28기념관 방문



2013. 3. 27. 효성여고 1~2학년으로 구성된 유네스코활동 그룹팀 40명은 조상길 지도교사의 인솔로 2·28기념관을 방문, 박명철 상임교문과 임순화 과장으로부터 2·28기념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2·28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산교육의 장이 되었다.

2·28기념관 고유제



2013. 2. 19.(화) 2·28기념관 개관식을 앞두고 2·28 이광조 공동의장과 박명철 상임고문 등 임원들은 2·28기념관의 발전과 무탈함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올렸다.

“2·28을 기억합니다” 정기 연주



2013년 3월 28일(목), 대구현대음악오케스트라(대표 최홍기)는 단원들과 함께 명덕네거리 2·28기념탑표지석 앞 인도에서 최홍기 대표의 반주로 선구자 등 5곡을 부르고 지나가는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본 연주회는 매월 28일 2시 28분에 같은 장소에서 거리연주회를 갖고 있다.



2·28일지(2013년)

1. 4. 2·28사무실 이전(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1. 9. 박명철 의장 외 15명 참석(세미나실)
1. 11. 2012년도 사업실적, 수지결산 감사(서성욱, 김약수 감사)
1. 11. 물베기예술마을 신년음악회 '주민이 주인이다' 박명철 의장 참석
1. 15.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이사회(사무실) 홍중흙 고문 외 16명 참석
1. 18. 하청호 이사, 하청일 유품 기증차 내방
1. 25. 2·28자연보호산악회(고산골) 양성호 회장 외 9명 참석
1. 26. 정수회신년교례회(제이스호텔) 박명철 의장, 김대일, 유옥생, 윤해수, 정수용 이사 참석
1. 31. 경북고 등 8개 고교 학교장 및 동창회장 간담회, 26명 참석
2. 5. 2013년도 정기총회(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회의실) 박명철 공동의장 외 135명 참석(제9대 공동의장 이광조 취임)
2. 6.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개관식 및 2·28민주운동 기념식 준비간담회
2. 19.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고사, 이광조 공동의장 외 17명 참석
2. 20. 김연수 대구시 행정부시장 내방, 신축 2·28기념관 점검
2. 20. 임원·현안간담회(2·28기념회관) (박명철, 홍중흙, 이방현, 이완식, 양성호, 김정길, 정태일, 권국현, 장만수, 백진호)
2. 21. 2·28자연보호산악회(고산골) 양성호 회장 외 5명 참석
2. 21. 이사 현안 간담회(박명철, 홍중흙, 김정길, 이완식, 정태일, 백진호, 이방현, 장만수)
2. 25.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박명철 상임고문)
2. 27. 2·28기념탑 참배(두류공원) 이광조 공동의장 외 32명
2. 28. 제53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 및 기념회관 개관식(김범일 대구광역시장, 2·28회원, 학생, 시민 520명 참석, 대구명덕초교 강당)
3. 5. 2·28자원봉사단 배다남 외 9명 간담회(2·28기념관 4층 회의실)
3. 1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문, 박명철 상임고문, 시 관계자 5명
3. 14. 기념회관 관계자 간담회, 이광조 공동의장 외 3명, 자치행정국 홍승환 국장 외 7명
3. 15. 제53주년 3·15의거기념식, 이광조 공동의장, 박명철 상임고문, 박중훈 상임이사 참가
3. 18. 김정길 고문, TBC 대구방송 사장 취임
3. 19. 대구시교육감 초청간담회(시 교육청 동관 3층 회의장)
(우동기 교육감, 성삼제 부교육감 외 3명, 이광조 공동의장 외 2·28임원 17명 참석)
3. 22. 2·28기념회관 방문, 중구의회 임인환 의장 외 6명
3. 22. 코리아실크로드탐험대 출정식, 이광조 공동의장 외 24명 참석
3. 28. 2·28기념음악회, 대구현대음악오케스트라 최홍기 단장 외 11명 참석
3. 29.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위원회 발기 회의 참석(이광조 공동의장)

2·28 학교 문화강좌

❖ 목표

- 민주시민 교양 함양
- 민주시민 가치관 확립
- 세대별 맞춤형 강좌

❖ 강좌 개요

- 개강일시 및 기간 : 2013년 6월 3일(금) 10:00~17:00
- 장 소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문화강좌실(4층)
- 강좌 내용

전 문 과 정	교 수
2·28민주운동 정신계승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임원
민주시민교육	
민주정신과 청소년의 미래	
민주정신의 기본과 나라사랑	
학교폭력 예방의 실제	
교 양 과 정	교 수
독서 · 논술	김원중(포스텍 명예교수 · 한국문인협회고문)
시 낭송 · 창작	곽홍란(시인 · 영남대학교 교수)
수필소개	장영향(수필가)
서양화 표현연구	허 용(계명대 명예교수 ·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우리그림스케치 및 답사여행	최우식(예원예술대 겸임교수 ·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서예(한문)	일정 장상두(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위원장 · (사)한국미술협회대외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예(한글)	문정 백옥자(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수상작가)
문인화	현동 사공홍주(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심사위원 · 대구·경북서예가협회 이사장)
체질과 한의학	김기호(김기호한의원 원장)

※ 강의시간표는 5월 1일 www.228.or.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2·28민주시민대학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이 지난 2월 28일 새롭게 개관하여 보다 진일보한 민주정신 계승과 자라나는 세대들은 물론 기성세대에 대한 다양한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제공하여 민주운동의 산실로서의 2·28 학교가 되도록 다하겠으며 상반기 과정에는 2·28민주정신의 기본, 새세대를 위한 민주정신이라는 주제로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교양과정으로는 시와 수필 및 미술, 음악실기를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자 함.

- 수강신청마감 : 2013. 5. 30.
- 접수방법 : e-mail 접수(개별접수 또는 집단접수)
- 접수문의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대구광역시 중구 2·28길 9

(남산1동 2113-10번지 2·28민주운동기념회관4층)

(우)700-826, T. 257-0228, FAX. 254-0228

e-mail : 228demo@hanmail.net homepage : <http://www.228.or.kr>



제13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 목 적 : 우리나라 민주혁명의 출발인 2·28대구학생 민주운동이 우리나라 정부수립 후 최초의 민주운동이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대구2·28정신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도록하여 21C 우리나라 민주 발전에 크게 기여함.
- 주 최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후 원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지방보훈청
- 응모마감 : 2013년 5월 31일(금)까지
- 주 제 : 2·28대구학생 민주운동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으로서 4·19혁명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부정 부패를 몰아냈던 대구 학생들의 의로운 운동 내용이나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담긴 글로서 각 학교에 비치된 2·28 민주운동사, 4·19혁명통사, 비디오, 홈페이지(<http://www.228.or.kr>),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전시물, 대구두류공원 2·28기념탑 비문, 2·28기념중앙공원내 시비 등을 참조하고 자세한 내용은 2·28기념사업회 사무실에 문의함(사회과 탐구, 대구의 생활 4-1,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4·19혁명 참조).
- 응모자격 :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고교 전학년생
(응모료(비)는 없음)
- 응모내용 : 각자 산문 1편씩(A4용지 2쪽 내외, 중복 제출 무효)
- 접수방법 : E-mail 접수(개별접수 또는 학교별 집단 접수)
- 접 수 처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대구광역시 중구 2·28길 9(남산1동 2113-10번지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우700-826 ☎(053)257-0228 / FAX(053)254-0228
E-mail : 228demo@hanmail.net
- 명단제출항목순서 : 학교명, 학년 반, 성명, 학교주소, 우편번호, 연락전화번호, 글제목, 담당교사명을 명기 바람.
- 심 사 : 각계 전문가로 구성
- 입상자발표 : 2·28홈페이지, 해당학교 및 개별통보(6월 중)
- 시 상 식 : 해당학교 및 개별통보(6월 중)
- 시상내용 :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지방보훈청장, 2·28공동의장상, 소속학교장상 등(초, 중, 고 재학생 및 지도교사 등 150명, 시상 내용은 접수량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



45년 전, 오늘도
100년 후, 오늘도

미래를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희망을 함께하는 든든한 은행

